

기본신앙교육자료 << 관리 >>

「한 편의 시」 “그 소원”	7
1. 관리란 무엇인가 (관리의 의미)	8
1) 관리가 생명이다	8
2) 관리는 관심이다	8
3) 관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 갈 자를 구한다	8
4) 관리는 무너짐과 실패를 막고 해결하는 최고의 일이다	9
5) 관리는 마음의 끈으로 같이 묶는 것이다	9
6) 관리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9
7) 최고의 관리	10
2. 관리하는 지도자의 마음 가짐	11
1)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여기지 말라	11
2) 하나님을 신으로 삼지 말아라	11
3) 신입생, 큰 자, 모두 챙겨라	12
4) 엄마라고 생각하고 생명들을 관리해야 한다	12
5) 때에 따라 다 흔들리고 바람을 타니 잡아주며 관리해라	13
3. 관리하는 방법	14
1) 하나님, 성령님의 관리법	14
2)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문제 없이 관리해주시다	14
3) 성령님의 생각으로 관리해야 된다	14

4) 주 안에서 각각 개성대로 사명을 맡기고 각각 개성대로 이끌어주기다	15
5) 전체를 교육하고 관리해야 된다	16
6) 교회 관리 운영	16
7) 관리하기 전에 기도하라	16
8) 화평과 화목으로 기뻐하며 해야 관리도 잘 된다	17
9) 섬세한 관리자들이 필요하다	17
10) 사랑으로 계속 관리해야 한다	17
11) 관리해줘야 편안함이 온다	18
12) 사람을 관리할 때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18
13) 지금 이 시대는 감정의 시대다.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하라	19
14) 관리도 목적을 두고 해야 한다	20
15)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면서 관리하는 것이다	20
16) 어린 생명과 큰 사람의 관리 방법	21
17)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신앙인들의 관리방법	21
18) 생명관리 할 때 몸과 마음과 생각을 딱 붙이고 행하는 자만 하게 된다 ..	22
19) 미리 하는 관리가 생명을 살리는 표적의 방법이다	22
20) 균형있게 관리하기다	23
21) 관리는 평생, 때를 따라,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다	24
22) 근본문제를 해결해주고 온전하게 살게 해주는 관리를 해야 한다	25
23) 관리 안 하면 죽고 다시 관리하면 살아난다	25
24) 관리는 엄마가 아기 관리하듯이 해야 된다.	26
25) 영과 육, 자연 관리	26
26) 섭리사 관리	27
27) 말씀으로 풀어 주어라	27

4. 자기 관리	29
1) 영을 존재시키려면 자기 관리를 연속해야 된다	29
2)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9
3) 스스로 말씀을 듣고 흡수하고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산다	30
4) 자기 개인 관리도 전체를 다 관리해야 된다	30
5)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매일 관리해야 된다	31
6)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황혼이 빨리 오기도 늦게 오기도 한다	31
7) 자기 관리해야 생명 관리된다	32
8) 각자 자기를 만들고 자기 생활 만들기다	32
9) 자기 관리도 기본 이상으로 하여라	33
10) 다른 사람도 관리하면서 자기 관리도 해야 된다	33
11) 자기 생명을 관리할 줄 알아야 남의 생명도 관리할 수 있다	34
12)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34
13) 매일 자기 몸,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행실 관리다	34
14) 깨어 있어 영혼육이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라	35
15) 월명동과 같이 자기도 자신을 관리하여라	35
16) 자기를 스스로 가리고 있는 잡초와 잡나무들을 가지치기하여라	35
17) 신앙 관리, 정신 관리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	36
18)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37
19) 몸부림쳐 관리하기다	37
20) 처음 만들 때처럼 관리해야 한다	38
21) 자기 생명 관리, 신앙 관리, 자기 건강 관리해야 된다	38
22) 다 크면, 자기 스스로 관리 해야 된다	38

5. 신입생, 어린 생명 관리	39
1)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관리해야 한다	39
2) 생명 관리	39
3) 말씀으로 관리한다	40
4) 말 안 듣는 생명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관리해주는 것이다	40
5) 신입생의 최고 관리시기	41
6) 초신자는 철저히 가르치며 관리해줘야 된다	42
7) 전도되어 온 사람 계속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	42
8) 성경의 중심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성경을 읽게 하라	42
9) 신입생 첫 신앙 때 전도해야 된다	43
10) 관리는 깨닫고 크는 차원대로 해주는 것이다	43
11) 신앙도 키워 주고 알려 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	43
12) 지나치게 관리하지 말고 스스로 행하게 하라	44
13) 어린 생명은 관리를 안 해주면 제대로 크지 못한다.	45
14) 어린 생명들을 사랑과 화평으로 대해 주어라	45
15) 성장기에는 잘 관리해야 한다	45
16) 생명을 전도하여 살리는 것이 자기 생명을 관리 하는 것이다	45
17)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 있다	46
6. 중간지도자 관리	47
1) 전체 관리를 해야 한다	47
2) 하나라도 사명을 해야 자기 관리가 된다. 일자리를 찾아라	47
3) 성장된 자는 가르쳐서 지도자가 되게 해 줘야 된다	48
4) 생명들을 자기 차원대로 보면 안된다	48

7. 힘들어하는 자 관리	49
1) 힘들어하는 생명은 잡아 주고 이끌어 올려 주어라	49
2) 영과 육이 죽기 전에 관리하라	49
3) 전도도 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50
4) 잃은 생명들을 찾아라	50
5) 환난 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관리하라	52
6) 생명들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	52
8. 관리의 문제점	54
1) 생명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유	54
2) 한두 사람만 챙기지 말고 전체를 공의롭게 대하여라	54
3) 관리를 온전하게 하는 자가 없으니 생명 유실된다	55
4) 부분적으로 관리하면 한 생명도 관리할 수 없다	55
5) 생명을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	55
6) 자기 주관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	55
7) 관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56
8) 관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조심하라	56
9) 인성으로 육적인 관리	57
9. 월명동과 관리	58
1) 자기 것이니 같이 쓰고 관리하며 살아라	58
2) 월명동 작품들이 귀한 것같이 너희는 귀한 생명들이다	58
3) 자기를 '희귀종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59
4) 돌 관리하듯이 관리해야 한다	60
5) <월명동 소나무> 손대서 관리해야 작품으로 잘 겁니다	60

6) 야심작, 연회장 단장하고 만들고 관리	61
10.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관리'	63
1) 하나님은 온 인류와 만물을 살피고 돕고 관리하신다	63
2) 우리 육신의 목자, 신령한 목자 : 하나님 성령님 성자	63
3) 하나님의 지구 관리와 통솔	64
4) 하나님 성령님은 지구 세상 80억명을 관리해 주신다	64
5) 예수님의 생명 관리	65
11. '관리'사연과 생활	67
1) 의(義)를 가지고 마음을 닦았다	67
2) 연구하고 노력했다	67
3) 하나님 성전의 관리자	67
4) '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살까?'	68
5) 필사적으로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만들었다	69
6) 각종 위기와 죽음에서 살리는 관리	69
7) 많은 사람들의 관리를 받으면서 컸다	70
8) 가르쳐서 하게 했다	71
9)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	71
10) 시간 관리	72
11) 건강 관리	72
11. 관리에 대한 잠언	73

「한 편의 시」 “그 소원”

관리

매일 관리하면
매일 좋다

수시로 관리
정해 놓고 관리
손에서 생각에서
놓지 않는 관리다

다 크면
큰 관리만 해야 한다

1. 관리란 무엇인가 (관리의 의미)

1) 관리가 생명이다

〈관리〉가 ‘생명’이다.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 일도 생명도 다 뺏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셀 수도 없이 많이, 너희를 관리해 준다.”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관리하시니,

우리도 관리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과

자기가 열심히 하여 받은 것들을 뺏기지 않는다.

먼저는 자기 관리다. 그리고 형제 관리, 생명 관리다.

그러면서 삼위 앞에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삼위 앞에 떳떳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된다.

2) 관리는 관심이다

〈관리〉는 ‘관심’이다.

25. 〈관리와 관심〉은

마치 깨진 바가지를 때워서 물이 안 새게 하는 격이다.

26. 〈가시에 찢려서 우는 아이〉도 가시를 빼 주고 치료해 주면,
금방 웃고 다친 것도 바로 낫는다.

27. 관리하면, 성공한다.

3) 관리는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 갈 자를 구한다

생명 관리가 얼마나 중하고 귀한지 알아라.

관리는 죽을 사람 살리고, 영혼이 죽어 지옥과 갇은 고통 세계와 무저갱과 불바다와 흑암의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가는 자들을 구해 주니,
그 얼마나 영원한 큰일이냐.

4) 관리는 무너짐과 실패를 막고 해결하는 최고의 일이다

3. 어떤 일을 해 놓을 때는 시간과 세월이 가면 계절을 따라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눈보라가 치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분다는 것을 알고 정말 온전하게 해야 된다. 온전하게 하려면, 너무 힘이 들고 공력이 든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고, 모든 인생의 삶도 그러하다.

4. 해 놓고, 계속 온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작은 것이 무너질 때 쉽게 고치고 방지할 수 있다.

5. 관리는 무너짐과 실패를 막고 해결하는 최고의 일이다.

5) 관리는 마음의 끈으로 같이 묶는 것이다

<관리>는 ‘마음의 끈’ 으로 같이 묶어야 됩니다.

혼자 두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사탄과 세상과 이성’ 이 포식자가 되어 잡아잡니다.

<관리>는 위해 주고, 섬겨 주고, 가르쳐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말씀의 무술을 익히게 하고, 행하게 하여

섭리사에서 ‘하나님과 주와 함께 행할 자들’ 을 키우는 것입니다.

6) 관리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도, 신앙도 존재하려면 계속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려면 갖춰야지요.

하면 자기 좋고, 남 좋고, 구원받고, 유익을 얻습니다.

존재하려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육신도 신앙도 병들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전도도 반복하고, 가르치는 것도 반복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반복하고,
관리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7) 최고의 관리

-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살아야,
<생명>도 잘 보살피고, <관리>도 <전도>도 잘하게 됩니다.
- <최고의 관리>는 역시,
<하나님을 절대 모시고 섬기고 같이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위대한 표적과 기적>이 즉시 일어납니다.
<생명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날마다 번창하게 됩니다.

2. 관리하는 지도자의 마음 가짐

1)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여기지 말라

전도자는 생명을 전도하여 ‘자기 낙’을 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도 잘 못 크고,
자기도 섬리사에서 크게 못 됩니다.
귀히 쓰여질 자인데, 귀히 쓰여지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도, 후에도 축복이 없습니다.

2) 하나를 신으로 삼지 말아라

◆ 각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들도 그러합니다.
<지정된 한두 명>이나 <한두 팀>만 신같이 섬기며 대하니,
<교인 전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가지 않습니다.
전도자도 ‘자기가 전도한 자들 중의 한 명’만 집중해서 챙깁니다.
섬리사 각 기관과 부서들도 그러합니다.
지도자들 먼저 이것을 정녕코 고쳐야 됩니다.

◆ 지도자들이 ‘지정된 한두 명, 지정된 한두 팀’만 챙기니,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타게 됩니다.
<소외감, 서운함, 섭섭함>은 ‘사탄에게 문을 따 주는 격’입니다.
사탄은 ‘소외감과 서운함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수료하고도 많은 생명들이 나간 데는
<하나>를 ‘신’으로 보고 대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고로 목회자, 지도자, 전도자들은
오늘 말씀같이 <하나>를 신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공의롭게 잘 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 유실’이 적어지고, 그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고,
그로 인해 목회자도 지도자도 모두 ‘힘’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기쁨과 희망으로 더 뛰고 달리게 됩니다.

◆ 목회자나 지도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 챙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불법’ 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권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자’ 입니다.

◆ <온 성도 전체>를 ‘각 지체’ 로 보고,
모두 공의롭게 대하여 두루두루 다 챙기고 키워야 됩니다.
모두 똑같이 잘 대해 주고 대접하며 공의롭게 대해야 됩니다.
사명자들은 모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사과 하나씩을 공의롭게 나눠 주듯이,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온 교인 전체’ 를 품어 주고 키우면
그들이 ‘교회 일’ 을 하고 ‘전도’ 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일’ 을 하고 ‘수백 명’ 씩 전도합니다.

3) 신입생, 큰 자, 모두 챙겨라

36.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 마음 문 닫게 하고 화목이 깨지게도 한다.

37. 신입생도 챙기고 다른 자, 큰 자도 챙겨라.

4) 엄마라고 생각하고 생명들을 관리해야 한다

가르칠 때, 키울 때, 관리할 때
화난다고,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속상하다고 멈추지 말고
그때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퇴비하듯 해야 됩니다.

◆ 이것이 바로 ‘행한 자’ 이며,
이것이 곧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것’ 입니다!

◆ <인생>은 만들면 만든 대로 되고 내버려두면 내버려둔 대로 끝나니,
<자신>도 <생명>도 부지런히 살피고 물과 퇴비를 해 줘야 됩니다.

◆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자들에게,
또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키우는 그것의 엄마’ 다.

네가 생명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생명을 ‘아기’라 생각하고,
네가 네 마음과 행실과 영을 키우고 있다면,
네 마음과 행실과 영을 ‘아기’라 생각하고 행해라.

5) 때에 따라 다 흔들리고 바람을 타니 잡아주며 관리해라

◆ 사람은 누구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굳건하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 다 흔들리고 바람을 탑니다.

보다 적게 흔들리느냐, 많이 흔들리느냐의 차이,

<자연성전 세운 돌>같이 ‘안 흔들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 성령님은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영>이 ‘휴거’ 됐어도 <육>은 100% 못 한다.

네가 위로하고 잡아 주어라.

다 굳건할 거라 믿지 말고, 관리해라.” 하셨습니다.

3. 관리하는 방법

1) 하나님, 성령님의 관리법

38. 하나님께 ‘관리법’을 물으니,
“개인으로 쪼개서 하고, 단체로 묶어서 100% 해야 된다.” 하셨다.
39. 성령께도 ‘관리법’을 물으니,
“한 번 했다고 관리가 된 것이 아니다.
아기를 키우듯 지속적으로 그때마다 해야 된다.” 하셨다.

2)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문제 없이 관리해 주신다

<귀한 생명>은 절대 혼자 관리하지 못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관리해야 된다.

<지구 세상의 많은 생명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루고 살피시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을 쉽게 다룬다. 지구라는 열차에 생명들을 다 싣고 한 번에 다룬다.” 하셨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어 그저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절대 문제없이 관리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휴거시켜 주신다고 확신했다.

3) 성령님의 생각으로 관리해야 된다

- <우리>는 ‘그 생명이 생각나면’ 돕고 관리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24시간’ 관리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생각과 감동>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순간순간 쓰시면서 <자기 삶의 관리>도 해 주시고,

<생명 관리>도 해 주십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지구세상 80억 명’을 관리해 주십니다.

<섭리사 생명들>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니다.

- <사람>은 늘 따라다니며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합당한 자>를 통해 ‘할 말’을 전해 주고 관리해 주십니다.

<여기>에 있으면 ‘여기 있는 합당한 사람’을 통해

‘할 말’을 전해 주고 관리해 주시고,

<저기>에 가면 ‘거기 있는 합당한 사람’을 통해

‘할 말’을 전해 주고 관리해 주십니다.

또, <그 생명>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을 통해 ‘부족한 것’을 알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4) 주 안에서 각각 개성대로 사명을 맡기고 각각 개성대로 이끌어주시다

◆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을 ‘양 떼’에 비유하며,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양 떼들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각각 개성대로 있습니다.

어떤 양은 물을 마시고, 어떤 양은 먹고,

어떤 양은 잠을 자고, 어떤 양은 눕니다.

목자는 양 떼를 인도할 때 전체를 하나로 모아 안전한 우리에 넣어 주고,

그 안에서 각각 ‘개성’대로 존재하게 해 줍니다.

인생들도 그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하되, 그 안에서 각각 ‘개성’대로 사명을

맡기고 각각 ‘개성’대로 이끌어 줍니다.

◆ 모두 이를 깨닫고 ‘생명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들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립니다.

5) 전체를 교육하고 관리해야 된다

<집회>도, <강의>도, <관리>도 ‘전체’를 놓고 봐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압니다. 아무리 많이 관리했어도 <관리할 자>
만 죽도록 했지, <전체>는 관리가 안 됐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하고 표가 납니다.
이렇게 하도록 ‘방법’을 찾아서 하기 바랍니다. 꼭이요!!
교회마다 <관리할 자들>만 죽도록 관리했기에
또 관리가 안 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체>를 ‘교육’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6) 교회 관리 운영

<각 부서 지도자들>은 ‘부서 전체와 부서 생명들’을 관리하고,
<목회자>는 ‘총관리’를 하며
부서 교육과 전체 교육을 계속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개인 면담’을 진행해 주고,
<부목회자>는 목회자와 함께 목회하듯
말씀 파트, 설교 파트, 관리 파트, 교회 운영 파트에
모두 신경 쓰면서 같이 ‘총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능력을 갖춘 자>가 ‘큰 목자’입니다.

7) 관리하기 전에 기도하라

관리해도 ‘감정’을 넣고 하면, 관리가 안 되고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 관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꼭 ‘기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탄을 몰아내고, 악한 것을 끊어 내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영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시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8) 화평과 화목으로 기뻐하며 해야 관리도 잘 된다

7.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전도할 때도, 관리할 때도 화평으로 기뻐하며 해야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목적인 바를 쉽게 얻을 수 있다.
8. 예수님은 성경에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뒀들이고, 생명들도 거뒀들이게 된다.” 라고 말씀했다. 신약 때는 화평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 시대에는 화평하게 해야만 하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된다.
9. 화평과 화목으로 대해야 전도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된다.
절대 화평으로 대해야 자신도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더욱 함께해 주신다.
10.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서로 화평으로 대해야 평화가 오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된다.
11. 화평으로 거뒀들이면 화평으로, 긍휼로 거뒀들이면 긍휼로, 죽음으로 거뒀들이면 죽음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9) 섬세한 관리자들이 필요하다

생명도 잘 관리하여 잘되게 하려면
<섬세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가 있어야 하며,
<섬세한 관리자들>이 필요합니다.

10) 사랑으로 계속 관리해야 한다

“생명은 참 관리하기가 어렵다. 생명은 탄생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너무나 정성도 많이 가고 너무나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시간도 많이 가고, 정말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로 생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잘못 관리하면 죽고 허무하게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사랑으로 시작되었으니 사랑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근본이다.” 말씀했습니다.

대개 보면 생명을 탄생은 시키는데 생명을 관리해서 성공을 시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죽지만 앓고 존재시킨다고 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아주 자기가 원하는 만큼 키워놓고 영광과 영화를 누리도록 부모가 길러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가꿔서 풍작을 이루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는 수고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비바람과 같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심히 커야, 그것이 서로 맞아야만 풍년을 얻을 수 있고 풍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해주고 함께해주고 보호를 철저히 해주는 데 같이 해야 합하여서 성공을 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1) 관리해줘야 편안함이 온다

힘들다고 편안하고자 생명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로 인해 더 힘든 일이 생겨서 10배나 더 고통을 받는다.
힘들어도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관리해 줘야 된다.
그로 인해 편안한 삶이 온다.

12) 사람을 관리할 때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하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면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펜 끝’이 ‘내 몸’을 찔렀습니다.

따끔하여 놀라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사람들도 ‘대하기’에 달려 있다.

<불펜 끝>으로 대하면 찌르게 되고,

<불펜의 부드러운 쪽>으로 대하면 찔러도 안 아프다.” (하셨습니다.)

상대에게 ‘어떤 모순’이나 ‘고칠 것’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불펜 끝>으로 대하듯 ‘날카롭게’ 대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서우니, 가까이 대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펜 옆면>으로 대하듯 ‘부드럽게’ 대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여 스스로 고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안 무섭고 부드러우니, 가까이 대합니다.

13) 지금 이 시대는 감정의 시대다.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하라

<감정>이란 ‘느낌’이다.

고로 ‘정’을 주어서 ‘정’을 느끼게 해 주어라.

<감정>은 ‘뇌의 생각’에서 느끼는데, 제대로 느껴야 된다.

무지로 상극하여 감정을 잘못 느끼고, 상대에게 열을 내면 안 된다.

실상은 ‘자기 자체에서 솟은 감정’이다.

이런 감정은 기도하여 식혀야 된다.

<진리와 사랑>으로 ‘공의롭고 좋은 감정’을 주어라.

이 시대는 <감정의 시대>다.

<감정>을 건드리는 대로 ‘의’로도 뒤집어지고 ‘화’로도 뒤집어진다.

귀뚜라미나 여치도 <감정>을 건드리면 물기도 하고,

반항심에 폴짝 뛰기도 한다.

<감정>은 거의 ‘말’로 반응이 일어난다.

<서운한 감정, 나쁜 감정>은 첫째, 잘 대해 주면 없어진다.
 둘째, 자기 자체적으로 마음을 갖고 닦으면 없어진다.
 <상대의 말과 행위>로 ‘감정’이 치솟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과 행위>로 ‘감정’이 치솟기도 한다.
 자기 관리를 못 해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감정이 치솟는다.
 자기가 무지로 행해서, 감정이 치솟기도 한다.
 자기가 조심하지 않고 행하다가 실수하여, 감정이 튕겨 나온다.
 자기가 상대방에게 잘못 말하고 대하니,
 상대가 그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감정으로 대한다.
 그러니 자기도 감정이 격해지면서 화가 난다.
 잘 보기다. 잘 대하기다. 잘 말하기다.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말아라.
 이 시대는 <감정의 시대, 느낌의 시대>다.
 고로 감정으로 대하면, 상대가 바로 느낌으로 알고 감정이 격해진다.
 시대가 ‘감정의 시대’이니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살아라.
 <감정>을 못 다스려서 일을 저지르고, 사고를 저지르고,
 개인도 민족도 싸우고, 전쟁까지 하여 피바다가 되기도 했다.
 <감정>이 결국 ‘화, 분노, 혈기, 악심’이 되어 불타서 터진다.
 <격한 감정>을 없애고, 하나님같이 ‘사랑’으로 대해 주어라.

14) 관리도 목적을 두고 해야 한다

<관리>도 ‘목적을 두고 하기’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확 잡히고 바로 서게 됩니다.

15)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면서 관리하는 것이다

* 관리도 관리하는 생명과 같이 살아야 관리가 됩니다.
 같이 살지 않는 자는 절대 관리를 못 합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꼭 한집에서 같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고 같이 대화하며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사는 자들끼리 대화도 하고 속 이야기도 합니다.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살면서 관리하는 것이 ‘밀착 관리’입니다.

16) 어린 생명과 큰 사람의 관리 방법

생명의 관리는,
반드시 어린아이는 옆에서 관리하는 데서 좌우된다.
그리고 큰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서 운명이 좌우된다.

17)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신앙인들의 관리방법

산의 소나무는 안 죽으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멋있게 되는가?
가지치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잔가지 다 쳐내고, 굵은 가지 남겨놓고.
또 새순이 나도록 많이 속아내면 또 새순이 올라와요.
소나무 새순을 보려면 잎사귀를 자꾸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면 그 다음에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싱싱합니다.
무조건 새순이 올라와야 싱싱합니다.
이와 같이 소나무의 관리법이 있듯이 자기 생명의 관리법이 있습니다.
나무마다 관리법이 다 다릅니다.
대나무는 어떻게 해야 또 큰 대를 볼 수 있는가 하니, 일단은 대나무를 베
어야 됩니다. 베고서 그 대나무에다 거름을 잔뜩 박아야 됩니다.
대나무는 한번 올라오고서는 크지를 않습니다. 한번 대순이 크게 올라와야
됩니다. 아예 팔뚝만한 것이 올라와야 그대로 올라온 대로 큼니다. 처음
손가락만한 것이 올라오면 이놈이 크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해지기만 할
뿐이지 크지를 않아요. 아예 처음에 대순이 크게 올라오게 만들어줘야 됩
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가 거름해도 커지지를 않습니다. 안 커집니다.
대순이 올라오기 전에 대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잔뜩 거름을 해서 충분히

빨아먹게 해서 아예 대순이 크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가꾸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어떤 사람은 대나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온 대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커서 올라옵니다. 그것은 크지를 않습니다. 영그는 것입니다. 단단해질 뿐이지 크지를 않아요. 한번 올라와 버리면.

그래서 아예 대나무를 크게 만들려면 처음부터 거름을 잔뜩 해서 확 올라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나무 같은 신앙들이. 그와 같다고 봐요.

모든 만물을 가꾸는 이치가 각각 다르듯이, 그런 만물의 모든 이치를 보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상대를 관리하고 그래요.

18) 생명관리 할 때 몸과 마음과 생각을 딱 붙이고 행하는 자만 하게 된다

◆ 신앙의 일도, 그 어떤 일도

<몸과 마음과 생각을 딱 붙이고 행하는 자>만 하게 됩니다.

◆ 생명 관리도 그러합니다.

손이 안 닿으면 물건을 못 만지지요?

생명을 관리할 때도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 관리를 못 하는 자는 몸과 마음이 떨어져서 못 하는 것입니다.

◆ 관리가 안 되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데,

관리하는 자가 “그 사람이 책임을 못 했다. 모순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서 ‘마음과 몸’을 떼 버리고 ‘손’을 놓으면,

그 생명이 사망으로밖에 더 가겠습니까.

19) 미리 하는 관리가 생명을 살리는 표적의 방법이다

◆ <세운 돌 하나>가 넘어질 것 같으면,

미리 다시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분의 1의 시간만 들어갑니다.

돌이 넘어진 후에는 <옆의 돌>까지 넘어뜨려서

그 돌들을 다 다시 세우려면 시간이 500배나 더 들어갑니다.

<생명 관리>도 그러합니다.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갑니다.

<다시 돌아올 자>라면, ‘한 주기’가 지나야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쓰러지기 전에 미리 하는 관리>가

‘생명을 살리는 표적의 방법’입니다.

20) 균형있게 관리하기다

35.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중에서 제일 크게 만들기를 원하나, 크다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이 아니다. ‘구조와 밸런스’다. 전체와 어울려야 하고, ‘크기’도 맞아야 된다.

36. <입이 큰 것을 좋아하는 자>는 입이 아주 커야 만족하나, ‘전체 얼굴의 균형’에서 벗어나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만일 입 하나만 있으면, 입이 커도 전체의 균형이나 구조와 상관없다. 그러나 눈, 코, 귀가 있으니 ‘전체의 균형’이 맞게 크기가 알맞아야 된다.

<월명동>도 그러하다. ‘전체의 균형과 구조’가 맞아야 된다.

만일 월명동에 높은 빌딩을 지어 놓으면 안 맞다. 월명동에 맞게 크기도 구조도 모두 균형이 맞아야 된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37. 사람의 눈, 코, 입, 귀, 얼굴 모두 ‘균형’이 맞게 하나님이 조화롭게 창조하셨다.

38. <돌>을 하나만 세우면, 돌이 커도 상관없다. 그러나 다른 돌도 같이 세워야 하니 ‘균형’이 맞아야 된다.

39. 다섯 손가락같이 크고 작고 ‘조화로운 구상’이다.

40. 월명동을 둘러싼 여섯 봉우리의 산들 중에 하나가 높이 솟았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전체가 ‘균형’을 잃어서 아름답지 않다.

41. 사람의 지체 중에 하나만 크게 그리면, 오히려 ‘전체의 미’가 없어진다. 이는 ‘구상의 기본법’이다.
42. <사람을 관리할 때>도 여러 사람을 놓고 그중에 한 명만 더 관리하거나, 일부만 관리하면 전체의 ‘균형’에서 벗어난다. 다만, 한 명만 있을 때는 상관없는 것이다.
43. <조화의 배치와 창조>다.
44.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타인의 것도 인정하며 좋아한다.
45. <자기 생각, 자기 취향, 자기 식>으로만 길들어서 행하면, 문제가 많다. 또한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게 된다. 자기 생각, 자기 취향으로 길들여진 것만 좋아하기 때문이다.
46.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취향>으로 만들어라.
47. 자기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자만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21) 관리는 평생, 때를 따라,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다

<관리>는 ‘평생 해 주는 것’이다.
 <성장시키는 관리>, <가르치는 관리>, <사명을 주는 관리>,
 그리고 사명 놓았을 때는 <삶의 관리>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하신다.

4. 어제까지 <관리>를 잘 했어도 오늘 <관리>를 안 해 주면, 바로 ‘표’가 나게 된다. ‘공백 없는 지속적인 관리’다.
5. <꽃나무 분재>와 <소나무 분재>도 물을 제때 주며 잘 관리하다가도 한 번이라도 ‘때’를 놓치고 물을 안 주면, 바로 죽어간다.
 <신앙의 사람>도 그러하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밤낮으로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관리해 주신다. 이를 깨닫고 늘 생각하며 자기도 <자기 관리>를 책임지고 하여라.

22) 근본문제를 해결해주고 온전하게 살게 해주는 관리를 해야 한다

12. <진리>와 <사랑>으로 가르쳐 주고, 배워서 알고 살도록 관리해 주어야 한다.
13. <그 순간에만 임시적인 도움을 주고, 잘해 주는 관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관리’다.
14. <위로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좋아해 주고, 대접해 주는 관리>는 ‘기분 관리’다.
15.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어야 ‘온전하게 살도록 돕는 관리’다.
16. 자기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잡초’도 뽑아 주고, ‘온도’도 조절해 주고, ‘물’도 주고, ‘퇴비’도 해 주고, 소독해서 ‘해충’도 없애주다가 ‘곡식’을 거두어들인듯이, <자기 신앙 농사의 삶>도 자기가 매일 부지런하게 살아 나가야 된다.
17. 옛집을 헐고 <새집>을 짓고 살려면, 새집이 완성될 때까지 지어야 된다. 이같이 <신앙의 집>을 짓고 살려면, ‘인생 삶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완성될 때까지 해야 된다.

23) 관리 안 하면 죽고 다시 관리하면 살아난다

- 생명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죽는다.
신앙도 구원받고도 관리하지 않으면 죽는다.
- 관리 안 하면 죽고, 다시 관리하면 살아난다.
-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껏 관리하지 않았다면, 다 파괴되고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 매일 관리해야, 매일 새것으로 존재하며 더 이상적으로 변화된다.
- 만물도 사람도 관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겠느냐.
관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태양, 공기, 산소, 중력권, 대기권 등 모든 것들이
매일 관리하기에 운행되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도 매일 관리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 아픈 사람도, 아프지 않은 사람도 매일 건강을 관리하여라.

관리하는 만큼 기적의 몸이 된다.

• 건강해도 장담하지 말고, 건강검진 받으며 관리해야 된다.

• 관리하지 않으면, 만물도 사람도 수한(壽限) 전에 죽게 된다.

• 깨닫고 보면, 놀 시간이 없다.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 관리하지 않으면, 모순을 보고 지적한다.

• 그동안 잘하다가 관리하지 않아서 넘어지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

24) 관리는 엄마가 아기 관리하듯이 해야 된다.

1. 두 엄마가 있었다. 이들은 아기를 한 명씩 낳아 귀히 키우고 있었다.
아기는 간신히 겨우 걷는 어린 아기였다.

하루는 급히 화장실에 가게 됐다. 한 엄마는 아기가 싫어해도 화장실에 아기를 껴안고 들어갔고, 다른 한 엄마는 아기를 밖에 놓고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아기를 밖에 놓고 혼자 화장실에 간 엄마는 불안하여 빨리 볼 일을 보고 나왔는데, 아기가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기를 못 찾았다.

아기를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간 엄마는 편히 시간을 보내고 나왔다.
누구의 결과가 좋으냐.

‘관리’는 아기 엄마가 아기를 관리하듯이 해야 된다.

2. 방에 아기를 놓고 순간 부엌에 갔다 오듯이 관리해야 된다.

아기를 혼자 두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 몇 시간 후에 와 보면 아기가 정상이 아니다.

3. 엄마가 물가에서 아기를 관리하듯이 어린 생명을 관리해야 된다.

25) 영과 육, 자연 관리

신앙도 말씀만 배운다고 다가 아닙니다.
 <영>이 존재하려면 <영>만 관리하면 안 되고,
 ‘영의 터전’인 <육>도 관리하고,
 <육이 사는 데 필요한 것들>도 관리하고,
 육과 연관된 <자연>도 생명시하여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생하지 않고, 육도 영도 빨리 변화되어 <휴거>도 잘됩니다.

26) 섭리사 관리

- <작품 나무>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십니다.
 <나무뿌리를 잘 파내고 드러내고 잘라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와 예수님이 시작하신 섭리역사>이지만,
 <더욱 빛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은하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 지도자들
 모두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섭리역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예수님도
 남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하여 새롭고 온전하게 할 것들’을 찾아서
 각자의 할 일들을 하며 이때를 보낸다면,
 자신도 섭리역사도 더욱 건강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27) 말씀으로 풀어 주어라

24. 말씀으로 풀어 줘야 된다. 육도, 영도, 마음도, 각종 어려운 문제도,
 오해된 것도 말씀으로 풀어 줘야 된다. 예수님은 구약의 문제를 신약 말씀
 으로 풀어 줬다. 육도 영도 신약권으로 풀어 줬다.

25. 말씀으로 풀어 줘야 되고, 심정을 알아주며 풀어 줘야 된다.

26. 병과 각종 문제에서 풀어 줘야 된다. 또 형제들끼리 사명자들끼리 서로 맺힌 것을 풀어 줘야, 근본 문제가 풀린다. 서로 풀어 주어 나사로같이 자유롭게 살게 해 줘야 된다.

4. 자기 관리

1) 영을 존재시키려면 자기 관리를 연속해야 된다

전도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생명을 탄생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 신앙의 생명이 탄생했을 때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영을 존재시키려면 자기 관리를 연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육신도 그만큼 잘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2)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주에서 차 타고 오다보면 붐비고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하필이면 여기에 살게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나 모르겠다’ 할 것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나,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나 그런 곳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빠져 나오면 다 같이 월명동에 와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코스의 인생을 살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왔을 때는 다 동일한 곳에 서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코스를 벗어나서 다른 코스로 해보겠다’ 해서는 안됩니다.

‘여기 밀리니까 다른 곳으로 가보자’ 하지만 거기도 밀립니다. 고속도로가 밀리면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서 다 국도로 빠지기에 국도도 밀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기도 밀리네. 그럴 바에야 아까 저리로 그냥 갈 것 그랬다’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인생 포기하고 남의 인생 가운데 덩으로 살려고 하면 안됩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언제 처리해도 처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살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자꾸 처리하고 처단을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해서 개인 개인을 세밀하게 잡아 나가야지, 덜퍽 덜퍽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고함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스스로 말씀을 듣고 흡수하고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산다

누가 ‘관리’ 해 준다고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관리해 줘도 ‘관리’ 만으로는 못 삽니다.

나무를 보세요.

<뿌리>는 누가 관리하여 물을 빨아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자체 뿌리의 작용>으로 물을 빨아들여야 삽니다.

그 터전 위에 ‘관리’ 입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듣고 흡수하고,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삽니다.

그 터전 위에 관리입니다.

<성령님 말씀>

“스스로 구원받고 휴거되기를 원해라.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 듣고 행해라.

자체적으로 말씀을 흡수하고 행하는 능력을 가져라.

그리고 관리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산다.”

4) 자기 개인 관리도 전체를 다 관리해야 된다

<자기 개인 관리>도 ‘전체’ 를 다 해 줘야 됩니다.

말씀 관리 100% 해도, 기도 관리를 안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영적 관리만 하다가 학교 공부나, 집,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육적 관리만 하면 영적으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개인>도 ‘전체’ 를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표도 나고, 차원 높이는 표도 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파트와 육적 파트에서 수십 가지로 관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 관리해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5)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매일 관리해야 된다

6.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얻고 감사하며 살던 자들도
점점 기도하지 않고 육성으로 살다가,
결국 ‘육성에 해당되는 세계’로 가서 그 삶을 살게 된다.
7. 육신은 매일 영에 속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매
일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다.

6)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황혼이 빨리 오기도 늦게 오기도 한다

7. 신앙도 이와 같다. <7단계 성장기>로 본다.
3년씩 7단계를 보면, 확확 변화되고 성장된다.
더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멈춘 것이다.
3년씩 7단계 성장기 이후로 또 3년씩 계속 단계를 보면, 신앙이 늙는 표
가 난다. 생각과 행실의 활동이 적어지고, 옛것에 멈춰져 있다.
마치 <인생 황혼기>에 얼굴과 몸과 각 기능이 쇠퇴하여 변하듯,
<신앙의 황혼기>를 맞아 변하게 된다.
얼마나 자기 신앙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황혼’이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한다.
자기 관리를 잘 못 하면 ‘신앙의 황혼’이 10~30년씩 빨리 온다.
8. <신앙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주면, 일찍부터 ‘신앙의 성장’이 멈추
고 늙어 가기 시작한다. 그러다 일찍 ‘신앙의 황혼’을 맞게 된다.
9. 말씀을 들어도 별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늙듯이 갈수록 신앙

이 늙어 가는 자들이 있다.

10. <자기 몸>도 ‘관리’를 잘하면 60세가 넘어도 15년, 20년씩 더 젊음을 유지한다. <신앙>도 ‘관리’하기에 따라서 젊게 된다.

11.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하면 나이보다 늙는다. <신앙>도 그러하다.

7) 자기 관리해야 생명 관리된다

◆ 항상 지도자들이 <자기 관리>를 못 하면,

절대 <생명 관리>를 못 합니다.

항상 교역자나 지도자가 <자기 관리>를 못 할 때,

<생명 관리, 교인 관리>도 안 되어 생명들이 힘들어하거나 나갔습니다.

◆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는 지도자>는

자기 신앙도, 생명들의 신앙도 잠들지 않게 합니다.

지도자가 <자기 관리>를 못 하고 신앙이 잠들어 있으니,

그때 ‘생명들의 신앙’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확실’ 하며 ‘진실’ 합니다.

◆ 잠들었다는 것은 ‘몰랐다.’ 함입니다.

교역자나 지도자가 잠들어 있으니 생명들이 힘들어도 모르고,

나가도 모르고 사탄이 채어 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8) 각자 자기를 만들고 자기 생활 만들기다

◆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만들기 어려운 것>이라도 만들기만 하면 ‘결작’이 된다.

나 여호와가 구상하여 자연성전을 만들듯,

각자 <자기>를 만들고 <자기 생활>을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 저마다 자기 만들기 힘든 부분 만들기,

자기 생활 멋있게 만들기입니다.

두 가지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걸작의 삶’ 이 됩니다!

9) 자기 관리도 기본 이상으로 하여라

83. <몸부림의 걸작>을 만들고, 찾고, 얻어라.

84. 지구 일곱 바퀴 돌면서 곳곳을 누비다 얻은 것들인데 소홀히 여기면 자격이 없어서 뺏기고, 다시는 못 얻는다.

<휴거>도 그러하다. 6000년 하나님의 구원역사 위에 이룬 것인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실한다.

<귀한 것>은 그만큼 관리하여 ‘기본 이상’ 으로 해야 된다.

85. 저마다 <자기 관리>도 ‘기본 이상’ 으로 하여라.

그래야 표적이 표 나게 일어난다.

10) 다른 사람도 관리하면서 자기 관리도 해야 된다

27. 관리하면, 성공한다.

28. <다른 사람>도 관리하면서, ‘자기 관리’ 도 해야 된다.

29. <의사>가 ‘다른 환자들 관리’ 는 해 주면서 ‘자기 관리’ 는 안 하니, 지구 세상에 병으로 죽는 의사들이 너무 많다.

<신앙의 관리자>도 그러하다.

30. <관리를 잘하는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 이다.

‘관리의 능력을 받은 자들’ 이다.

31. <은혜 중의 권세 있는 은혜>가 ‘관리의 은혜’ 다.

32. 동물들도 ‘새끼 관리’ 를 철저히 해서 새끼들을 살린다.

33. 관리를 못 하면, ‘10년 동안 키운 자’ 라도 순간 잃게 된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기>다.

키우면서 자기도 그와 함께 뭉쳐서 하면, 자기도 죽음에서 살게 된다.

이는 ‘두 겹 줄’ 이라 아주 튼튼하다.

11) 자기 생명을 관리할 줄 알아야 남의 생명도 관리할 수 있다

1. 자기 생명을 관리할 줄 알아야 남의 생명도 관리할 수 있다.
2. 자기 생명을 관리하면서 생명 관리법을 배우고, 이 생명을 관리하면서 저 생명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3. 형제의 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자기 생명도 관리하게 된다.
나무 관리, 꽃 관리, 집 관리, 정원 관리, 가축 관리, 곡식 관리, 음식 관리, 귀한 물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배우고 그와 같이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도 관리하는 것이다.

12)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야 하는지 아느냐.

영원히 찾아도 <더러운 것>이 ‘모래 한 알 만큼’ 도 없어야 된다.

더러우면, 그에게는 안 간다. 깨끗해야 간다.

모두 <회개>다. <온전한 생활>이다.

매일 씻듯, ‘매일 회개’ 다. ‘매일 의의 삶’ 이다.”

13) 매일 자기 몸,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행실 관리다

5. <자기 몸>이 아름답고 멋진 자라도 매일 관리하지 않고 살면,
‘멋’ 도 잃고, ‘아름다운 형상’ 도 잃게 되느니라.
6. <영의 형상>도, <신앙의 미>도 ‘육’ 과 같으니라.
<육>도 행위대로 형성되고, <영>도 그러하니라.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매일 삼위의 생각으로 살아야 자기도 그같이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이 되느니라.
8. <몸 관리>를 안 하면 바로 표가 나듯, <영>도 <혼>도 그러하니라.

9. 매일 ‘자기 몸,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행실 관리’ 나라.

14) 깨어 있어 영혼육이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라

회개함으로 깨끗이 되어 각종 유혹을 이기고,
자기 영과 혼과 육이 사망에 갇히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봐야 된다.
태만하고, 게으르고, 안심하면,
사탄과 악에 속한 자들의 유혹과 말에 피여 그들과 같이 고통받게 된다.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사망으로 가게 된다.

15) 월명동과 같이 자기도 자신을 관리하여라

처음에 보잘것없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여 변화되니, 희망 있는 자가 되었다. 모두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자가 됐다.
월명동 소나무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보잘것없어서 희망도 없고, 쳐다보는 자도 없었다.
긴긴 세월이 가도록 관리하니 커서 모두 좋아하며 좋은 산소를 뿜어 주고,
거목이 되어 월명동 하나님 궁에 아름답게 풍치를 이룬다.
우리들도 모두 그러했다. 관리하여라.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다.
고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주님도 구원해 놓고 희망으로 매일 관리해 주시니, 자기도 자신을 관리하여라.

16) 자기를 스스로 가리고 있는 잡초와 잡나무들을 가지치기하여라

- 성령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기 성격과 행실>이
<자기를 가리는 잡초와 잡나무>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상대를 가리는 잡초와 잡나무>가 되기도 하고,
<상대>가 <자기를 가리는 잡초와 잡나무>가 되기도 한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기>를 스스로 가리고 있거나,
<상대>를 가리고 있는 ‘잡초와 잡나무들’을 가지치기하여라.”
하셨습니다.

• 각 교회 안에서

<잡초와 잡나무에 가려서 햇빛을 못 보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가지치기하여 깨끗이 하기도 하지만,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이
<말씀>을 전해 주고 관리해 주며 도와주기도 해야 됩니다.

17) 신앙 관리, 정신 관리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

1. 저마다 자기를 부지런히 만들고 관리하여라.
2. 신앙 관리, 정신 관리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
3. 자기 마음과 생각은 자기 것이니, 스스로 정신 차리고 다스리고 주관해야 된다.
4. 자기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사는 데 있어서는 자기 정신이 얼마나 살았느냐가 문제다.
5.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자시다. 인간의 정신이 살아 행동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존재하심을 알 수 있다.
6.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7. 산 자란, 정신이 살아서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자다.
8. 산 자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다.
9.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관리하여라.
10.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자는 비정상이니, 관리를 잘 못 한 자다.
11. 절대 믿음과, 기도와, 감사와, 주와 일체 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신앙을 관리해야 된다.

18)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겪고, 또 생각해 보아도

역시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를 문제없게 하려면 매일 잊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매일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시길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사고 안 나고, 백성을 잘 다스린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19) 몸부림쳐 관리하기다

1. 몸부림쳐 만들었으면, 몸부림쳐 관리하기다.

2. 하늘에 닿도록 높은 희망을 품고 몸부림쳐 만들었다.

다시 만들려면 인생이 가고 때가 가서, 다시 만들지도 못하는 작품이다.

이제는 관리를 기쁨으로 삼고 행하며,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써야 한다.

3. 신앙 관리다. 자기 관리다.

4.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더 이상 못 준다.

그러니 생명같이 여기고 관리해야 한다.

5. 관리를 잘하고 쓰면, 처음보다 더 빛이 난다.

갈수록 나무는 크므로 값이 하늘까지 치솟고,

가치가 갈수록 높아져 귀한 희귀종이 된다.

소나무는 해마다 크니 세월이 갈수록 더 풍요롭고,

그 아름다움도 하늘 높이 치솟는다.

돌은 갈수록 닳고 닳아 빛이 난다.

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귀하게 모두 관리하며 깨닫고 써라.

20) 처음 만들 때처럼 관리해야 한다

관리할 때는 처음 만들 때처럼 관리를 해야 한다.

만들 때를 생각하며 관리하자.

안 하면 점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형상을 잃게 된다.

자기 신앙도 그러하다.

21) 자기 생명 관리, 신앙 관리, 자기 건강 관리해야 된다

◇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생명 관리입니다. 자기 신앙 관리입니다. 자기 건강 관리입니다.

◇ 자기를 타인보다 먼저 완전하게 관리하고,

완전히 알고 나서 약한 생명을 관리하기,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가르쳐 주기입니다.

22) 다 크면, 자기 스스로 관리 해야 된다

• <관리를 받는 사람>은

왜 여러 사람이 나를 관리해 주냐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크면, <자기>가 ‘스스로 관리’해야 됩니다.

5. 신입생, 어린 생명 관리

1)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관리해야 한다

5. <귀한 생명>은 절대 혼자 관리하지 못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관리해야 된다.

12.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기도’를 해주라는 말이다.

2) 생명 관리

관심을 가져 주고, 절대 꾸짖지 말고 가르쳐 줘야 된다.

무시하지도 말고, 말을 잘 들어주며 같이 행해야 된다.

또 그릇되게 행하는 것은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

흡수력이 강한 때이니,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고 관리해 줘야 된다.

억지로 인도하면서 말을 강하게 하지 말고, 순리로 순수하게 대해 주면서 은혜롭게, 다정하게, 화평하게 대해 줘야 된다.

이것을 새롭게 해야 교회마다 생명들을 잘 기르게 되고,

화평하게 되어 교회가 부흥되고,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말씀>을 온전히 알도록 가르쳐 주고,

<말씀의 주인>이 되어 온전히 살도록 가르쳐 주고,

자기 몸의 때를 자기가 씻듯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여 해결하게 해 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활하게 해 주고,

<주일 성수>를 하게 해 주고,

<각종 환난>을 어떻게 대하며 이기는지 가르쳐 주어 지혜롭게 행하게 해 줘야 된다.

3) 말씀으로 관리한다

음식을 먹으면 몸에 그 영양가가 흡수되어 힘이 오듯이,
말씀은 음식과 같아서 듣고 배우면 영적 능력이 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관리’는 말씀을 온전하게 넣어 주는 것이다.

전도자와 관리자는 말씀을 깊이 전해 주는 강사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전도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 주고, 말씀으로 인해 오는 환난을 끝까지 이기라고 전해 줘야 된다.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고, 수시로 교통하며 관리해 줘야 된다.

4) 말 안 듣는 생명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관리해주는 것이다

◆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도, 생명도, 자녀도
〈곡식〉이나 〈각종 과일나무〉로 보고 대해라.” 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곡식〉과 〈과일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물을 주고 퇴비를 해 주고 관리를 하는데도 잘 안 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물 없는 고통을 당해 봐야 돼. 너 곡식아. 너 과일나무야.
네가 정신 차릴 때까지 물도 안 주고 퇴비도 안 줄 거야.
관리도 안 할 거야.그러니까 네가 정신 차리고 알아서 커라.”

하겠습니까?

◆ 물을 안 주고, 퇴비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곡식>이나 <과일나무>가 정신 차리고 더 잘하겠습니까?

더 마르고, 시들해지고, 파리해집니다.

그러니 결국 ‘주인’ 만 더 실망합니다.

◆ <생명들>도 그러합니다.

전도자, 관리자, 강의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따라오기도 하고,

가르치고 관리해 주는 수고를 몰라주기도 합니다.

그때 “너는 고통 좀 겪어 봐야 돼. 네가 깨닫고 열심히 해 봐라.” 하며
손을 놓으면, 생명이 더 파리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실망되고 화가 나면... (잠시 쉬었다가)

더~ 물을 주고, 더~ 퇴비하고, 더~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곡식>도 <과일>도 그만큼 더 큽니다.

그러다 ‘제때’ 가 되고 ‘가을’ 이 되면 자기 수고한 대로 거둬들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방법’ 입니다!

5) 신입생의 최고 관리시기

◆ <최고 관리 시기>는 첫째, ‘배울 때, 신앙이 어릴 때’ 입니다.

그때 잘 잡아 주고, 제대로 가르치며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때 분위기로만 이끌고, 먹는 것으로만 이끌면

그것만 맞추다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전도했을 때, 호기심이 나서 배울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 <최고 관리 시기>는 둘째, ‘수료 후 3개월까지’ 입니다.

이때는 ‘말씀과 핵’ 을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6) 초신자는 철저히 가르치며 관리해줘야 된다

초신자는 전도자나 옆의 사람들이 관리해 주고,
목회자가 철저히 가르치며 관리해 줘야 됩니다.

7) 전도되어 온 사람 계속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

월명동 일을 같이 해 보면, 너무 어렵고 힘들게 땀 흘려 한다.
나는 갈썩갈썩해도 더 많이 한다.
연구를 해서 그렇다. 계속 연구를 불같이 해야 한다.
나무 새로 옮겨 심으면 계속 물을 줘야 한다. 그래야 새 뿌리가 난다.
전도해 온 사람, 계속 말씀을 줘야 한다.
그래야 새 뿌리 나와 뿌리박는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재미있게 계속 줘야 한다.

8) 성경의 중심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성경을 읽게 하라

<성경을 모르는 초신자>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모세, 여호수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나 선지자의 교훈, 다윗, 다니엘, 삼손, 기드온, 아담과 하와, 에스더,
사무엘, 엘리야, 그 외 선지자들과 사사들 등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평소에 해 줘야 됩니다.

설교 때 들으려면 인물 이야기는 가끔 하니까 언제 들을지 모릅니다.

전도자나 교역자는 모아 놓고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해 주며 그들을 통한 교훈을 알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 수요일, 기타 집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에 대해서 아
니까 말씀을 깊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배경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리 공부를 마친 후에나, 혹은 마치기 전이라도 성경의 중심인물들에 대하여 말해 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꼭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어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을 깨닫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배운 부분에 해당되는 성경말씀은 읽어 보라고 책임을 주어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초신자들에게는 기본 말씀을 꼭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본 신앙이 서고, 이 시대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9) 신입생 첫 신앙 때 전도해야 된다

신입생들은 첫 신앙 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 보면서

생명을 전도할 때의 심정과 주님의 심정을 몸소 깨닫게 해 줘야 됩니다.

10) 관리는 깨닫고 크는 차원대로 해주는 것이다

<생명 관리>도 생명이 신음 소리를 낼 때 못 하면, 끝납니다.

생명을 관리하여 살리면, 관리한 자에게 ‘복’ 이 갑니다.

처음 생명을 전도하여 불붙었을 때 그때 ‘말씀’ 으로 100% 잡고, 3~5년씩 꾸준히 관리해 줘야 됩니다.

5년 동안 관리해도 ‘다섯 살 어린아이’ 입니다.

관리하는 생명이 잘 성장하면,

그때는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말고 성장한 대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관리>는 ‘깨닫고 크는 차원대로 해 주는 것’ 입니다.

11) 신앙도 키워 주고 알려 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

갓난아기가 어느 정도 컸어도 처음에는 기어 다니기만 하지, 걸어 다니지

는 못한다. 걷지 못한다고 기어 다니지도 못하게 하면, 아기는 가만히 옆
드려 있어야 된다.

그때 ‘기어 다니도록 자유 의지’를 줘야 된다. 기어 다니다가 조금 더
크면, 기어 다니라고 해도 안 한다. 그때부터는 걸어 다닌다.

이와 같이 <신앙의 생명들>도 크고 성장하면, 어렸을 때 하던 대로 하라
고 해도 안 한다.

그래서 <신앙>도 키워 주고 알려 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

성장하면 스스로 행한다. 알려 줘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행하는 속도>가 느릴 뿐이다.

유혹하고 꺾는 자가 알려 주면 그것을 행하니,

그 전에 <어린 신앙인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고 인도하여라.

12) 지나치게 관리하지 말고 스스로 행하게 하라

“지나치게 <의인> 만들지 말아라.

지나치게 <의인> 만들려다가 생명 죽인다.

다만 <말씀>을 주고, 스스로 깨닫게 하여라.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인데

잘 못 한다고, 문제 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가 완벽하게 잘하겠느냐.

<생명에 대해 지나치게 보고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있으니,

이제 그만해라.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처리하니, 오히려 ‘사고’ 난다.

잘못하면, <보고>가 ‘감시’가 된다.

형제들을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고 대하지 말아라.

다만, 계속 <말씀>을 해 주어라.

그들이 듣고, 스스로 행하게 해 주어라.

후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마다 합당한 지혜>가 참으로 중하니라.”

13) 어린 생명은 관리를 안 해주면 제대로 크지 못한다.

1. <어린 생명>은 ‘관리’를 안 해주면 제대로 크지 못한다.
2. <관리>는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하던 일’을 연속 진행하게 하기도 한다.
3. <관리>를 안 해 주면 ‘제 갈 길’로 가게 된다.

14) 어린 생명들을 사랑과 화평으로 대해 주어라

9.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도 충격을 크게 받는다. 그 충격이 뇌에 박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말을 강하게 하는 자들>은 정작 자기가 잘 못 행하고도 보통으로 생각한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회개할 줄도 몰라서 휴거되어 황금천국에 가는 데까지 지장이 크다.
10. 모두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강하게 막고 꾸짖지 말고, 사랑과 화평으로 대해 주어라.

15) 성장기에는 잘 관리해야 한다

성장기에는 열정도 많고 잘 깨닫고 뛰지만,
그만큼 잘 식고, 잘 변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쥐고 행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쳐다보면서 응원해 주고, 기도로 돕는 것이 지혜다.

16) 생명을 전도하여 살리는 것이 자기 생명을 관리 하는 것이다

생명을 전도하여 살리는 것이 자기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다.

사망으로 가는 생명들을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과 주 역시 그 생명을 귀하게 관리해 준다고 하셨다.

17)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 있다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책상’ 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가지고 ‘책상’ 으로 만드니, 그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책상’ 으로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대로 사람들이 책상으로 씁니다.

★ 사람도 만드는 대로 되고, 만든 대로 쓰여집니다.

자기를 만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만든 대로 쓰십니다.

★ 그러나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위대한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행하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 하나님과 성자는 ‘말씀의 자료’ 를 주십니다.

그 ‘말씀 자료’ 를 가지고 자기가 행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6. 중간지도자 관리

1) 전체 관리를 해야 한다

<전체 관리>입니다.

중간 지도자들이 생명들을 직접 다루면서 잘하기도 하지만 강한 말이나 행동으로 생명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니, 교회 중간 지도자들을 잘 관리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는 공의롭지 못하게

일부 몇 명만 관리하고, 잘되는 부서만 관리합니다.

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부서장 수준’입니다.

<전체>를 관리해야 ‘관리’가 됩니다.

저마다 ‘생활 목록, 관리 목록’을 적어 놓고,

<전체>를 다 관리했는지 매일 체크해요!

이것이 안 되니 1년, 2년, 3년씩 밀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해 버려요!

부서 지도자들도 <자기 부서 전체>를 관리하지 못하고,

몇 명만 적극적으로 몸부림쳐 해 줍니다.

그러니 몸부림쳐 해 놓고도 별로 못 했고,

나머지 생명들을 뺏기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체 관리>입니다.

2) 하나라도 사명을 해야 자기 관리가 된다. 일자리를 찾아라

8. 관리할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에 앞서, 그 생명이 어느 정도 컸으면 그에게 사명을 주어 행하게 해야 된다. 본인도 생명을 길러 봐야 관리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된다.

9. 신앙생활 한 지 3년, 5년, 7년 이상 된 자들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자기 관리가 아니다. 하나라도 사명을 해야 자기 관리가 된다. 일자리를 찾아라.

10. 혼자 많은 것을 하면 약하다. 전문 관리자는 한두 개 정도만 하면 된다. 관리받는 자가 일을 못 한다고 늘 마음 줄이면서 일을 안 맡기면, 그 청춘이 그냥 가 버린다.

3) 성장된 자는 가르쳐서 지도자가 되게 해 줘야 된다

〈성장된 자〉는 ‘관리’를 해 주기보다
가르쳐서 ‘지도자’가 되게 해 줘야 된다.

4) 생명들을 자기 차원대로 보면 안된다

56. 하나님 사랑 상징 돌을 살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차원이 낮아 자기를 머리로 삼고 하니,
마치 돌 주인이 ‘제일 좋은 작품 돌’을 ‘세 번째 순위’에 놓고 보듯
생명들도 자기 차원대로 본다.” 하셨다.

59. 교회마다 비바람 맞고 손을 안 대서 때가 끼고, 마음이 변해 가고,
행실이 변해 가는 자가 있나 보아라. 돌 자체는 자기를 빛내려 못 닦는다.
주인만 닦는다.

7. 힘들어하는 자 관리

1) 힘들어하는 생명은 잡아 주고 이끌어 올려 주어라

7. 힘들 때 한때 잡아 주고 이끌어 올려 주어라. 그러면 다시 오른다.

힘들 때 잡고 오를 자가 없으면 그냥 하산하게 된다.

8. 한때 코스의 한계선에 다다랐을 때, 그때 잡아 주어라.

그때 잡을 자가 없어서 못 오르면, 내려간다.

그러면 ‘인생 길의 운명’ 이 달라진다.

12. 사람이 힘들 때는 안 좋게 생각하고 행한다.

그때 그가 행한 대로 대해 주면,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 못 살린다.

13. 힘들 때는 생각이 ‘좌절, 포기, 낙심’ 으로 흐르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는 것이니, 그가 말하는 대로 대답하고 대해 주면 안 된다. 이끌어서 힘을 줘야 ‘가던 길’ 을 간다.

2) 영과 육이 죽기 전에 관리하라

아름다운 나무가 죽었다 합시다.

죽은 나무를 보고 아까워하면서 계속 놓고 보겠습니까?

빨리 돌아다니면서 ‘산 나무’ 를 찾아서 갖다 심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큰 나무라도 <죽은 나무>라면,

<살아 있는 작은 나무>만도 못합니다.

<죽은 시체>는 갈수록 부패됩니다.

고로 빨리 땅에 묻어야 ‘살아 있는 자들’ 에게 유익입니다.

<신앙이 죽어서 다시는 못 살아나는 자>도 그러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 쉬는 자는 아무리 기능을 못 해도 땅에 묻지 못하듯이,

<신앙>도 기능은 못 하는데 숨은 쉬고 있으니,

‘사망’에 묻을 수 없어서 그동안 지켜왔다.
그러다가 ‘신앙의 숨’을 멈추니, ‘사망’에 장사 지내게 된 것이다.
〈육〉이 한 번 죽으면 못 살아나듯이,
〈영〉도 한 번 사망으로 끝나면 다시는 못 살아난다.
〈영〉이 죽지 않게 하여라. 〈육〉이 죽지 않게 하여라.

3) 전도도 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 〈전도〉도 하지만,
전도했던 그 마음으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다시 찾아야 할 사람들’을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전에 몇 달 동안 꼭 ‘사전 기도’를 하고,
조건을 세웠으니 찾아가 보세요.
“너 부른다. 찾는다.” 하면서,
지난주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도 말해 주면서,
성령과 함께 다시 살리기 바랍니다.

4) 잃은 생명들을 찾아라

12. 〈사탄〉에게 ‘자기 마음과 생각의 운전대’를 뺏기면,
본인이 싫어해도 따라가게 된다.

13. 섭리사에도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의 운전대’를 사탄에게 뺏긴 자다.

고로 옆에 있는 자가 파악하여 본인에게 이야기해 주며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어 그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서 다시 빼앗아 와라. 본인이 다시 하겠다고 마음먹고 행하면, 사탄에게서 ‘자기 마음과 생각의 운전대’를 빼앗아 온 것이다.

15. <자기 방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잊고 안 찾으면, 없는 것이나 같다. 존재하고 있으니, 찾으면 있다. 그같이 <잊은 것들>도 ‘자기 뇌 속’에 있고, ‘섭리사 주관권’에 있으니, 찾으면 있다. <생명들>도 그러하다. 있으니, 찾아라.

16. 선생이 한 서류를 잊어서 방에서 1시간 동안 찾았다. 찾는 중에 잊었던 다른 7개의 서류도 찾았다. 결국 처음에 잊었던 서류도 찾고, 다른 것들도 찾게 되었다.

이같이 <생명들>도 ‘찾을 자’를 찾다 보면, 그동안 잃은 생명들도 생각나서 그 바람에 다 찾게 된다. 그리고 결국 처음에 ‘찾으려고 했던 자’도 찾게 된다. 이같이 하라고 성령님께서 계시하셨다. 생명들을 잃는 문제가 일어나 기도한다. 잃은 자가 많다. 잃은 생명들을 찾고 있으니, 모두 기도해 주어라. 이 <때>를 따라 잃은 생명들을 모두 찾자. 그러면서 다른 자들도 이 기간에 찾자.

17. 잊으면, 그 생명은 죽는다.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17. <잃은 생명>을 찾아야 되고,
<자기에게 속한 각종 잃은 것들>을 찾아야 된다.

18. 잃은 양을 찾는 심정으로 매일 ‘생명들’을 찾고,
‘자기 할 일’을 찾아야 된다.

19. <잃은 첫사랑>을 찾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4~5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했다.

저마다 ‘뜨거웠던 첫 마음, 첫 행실, 첫사랑’을 왜 잃게 됐는지, 어디에서 잃게 됐는지 깨닫고 되찾아야 된다.

3.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원인을 보면, 관리 부족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생명이 자기가 처한 환경대로 살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중심권에서 떠나기도 한다.

4. 같이 따르던 생명들이 안 보이면 ‘찾아오는 것’ 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이니, 모두 찾아서 데려와야 된다.
5. 자기 개성대로 ‘가야 할 길’ 이 있고, ‘해야 될 일들’ 이 있다. 그러므로 진로 결정을 잘 인도해 줘야, 생명들이 딴 길로 안 가게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의 갈 길을 모르고 자기 주관대로 생명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운명대로, 재능과 능력대로 잘 분별하고 이끌어 줘야 된다.

5) 환난 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관리하라

12. <본인>이 포기하거나 마음이 변해버리면, ‘관리자’ 도 어려워한다. <전능자>는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도우니, 관리 받는 <본인>도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 앞으로 잘하게 된다. 고로 포기하지 말고 행하여라.
13. 신앙으로 졸다가 <환난>과 <자기 어려움의 일>이 닥치면, ‘마음’ 이 꺾여버리게 된다. <관리자>가 ‘마음’ 을 일으켜 주고, 잡아 주며 한 동안 옆에서 같이 살아 줘야 된다.
14. 저마다 지난날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사연들’ 을 듣고, 말해 주며 관리해 주어라.
15.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믿고 행하면, ‘절대 관리’ 가 된다.
16. <사탄과 마귀들>이 꺾어서 ‘마음’ 을 혼돈되게 하니, 하나님께 기도 하여 ‘마귀와 귀신과 악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처리하시게 해 드려야 된다.
17. 환난 때 <사탄과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하니, 꼭 다스려야 된다.

6) 생명들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

- <두 번째 소나무>도 불까요? 역시 걸작입니다.
- <이 소나무>는 ‘땅’ 으로 뺏어 있었는데,

성령님이 높여 주라고 하셔서 ‘덥인 흠’을 파내고 높여 줬습니다.
이는 “〈사람〉도 칭찬해 주고 높여 주면,
‘더욱 멋진 작품’이 된다.” 함입니다.

• 〈개인〉마다, 〈교회〉마다

〈생명들〉을 살피 주고 치료해 주기 바랍니다.

〈덥인 흠〉을 파내 주듯 〈억눌려 있는 것〉을 해결해 주고,
〈개미〉를 잡아 주듯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 〈개미〉가 ‘나무’를 파먹듯,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는 생명들〉이 있으니,

〈개미〉를 잡아 주어 ‘나무’를 깨끗이 해 주듯,

〈생명들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41. 어떤 일을 오해하는 자는 자기 주관이 강해서 옳은 말을 해 줘도 빗나간다. 오해한 자에게는 얹히고 묶인 것을 풀어 주어라.

42. 자기가 무지하여 시험에 든 자도 있다. 알려 주어라.

43. 끝까지 하다 보면 풀린다. 끝까지 가 보게 하여라.

44. 과정 중에 시험 들고 맴도는 것들이 생긴다.

이스라엘 민족도 과정 중에 불만했다. 끝까지 갔으면 다 풀렸다.

8. 관리의 문제점

1) 생명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유

70%가 ‘관리 문제’로 섭리사를 나가고, 그중에서 ‘목회자와 지도자가 주는 상처’로 인해 안 나오는 자들만 30%나 됩니다.

나머지 30%가 ‘그 사람 본인이 책임을 안 해서, 가치를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신앙을 저버립니다.

또 <신앙의 병>이 들어도 결국 세상으로 갑니다.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지요?

이와 같이 <신앙>에 병이 생기면 ‘말씀의 맛’을 못 느끼고,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점점 더 ‘육성’으로 치우치다가,

결국 그것이 깊어지면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2) 한두 사람만 챙기지 말고 전체를 공의롭게 대하여라

목회자와 지도자도 그러하다. 각 교회에서 <한 사람>을 ‘신’으로 삼고, 그 ‘한 사람’에게 온 생각과 정성과 시간을 쏟는다.

<교회 전체를 위해 세운 목회자>가 ‘한두 사람’을 신처럼 삼고 그들만 챙기고, 그들만 키우고, 그들과만 즐거워한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전체>가 소외감과 서운함을 타게 되고, 그로 인해 ‘생명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화분들이 있는데 ‘물을 주는 화분’만 살지 않냐.

교회에서 ‘한두 사람’만 챙기면,

<전체>는 ‘물을 안 주는 화분’ 같이 시들다가 죽게 된다.

전도자들도, 관리자들도 그러하다.

앞으로는 ‘한두 사람’만 관심 주며 챙기지 말고, 부모같이 똑같이 대해라.

태양이 온 대지를 비추듯, 비가 온 대지를 적시듯,

나 여호와가 의로우나 불의하나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해와 비를 주듯,
전체를 공의롭게 대하여라.

3) 관리를 온전하게 하는 자가 없으니 생명 유실된다

생명 관리, 강의, 교육도 ‘온전하게 하는 자’가 없으니,
교회마다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여 ‘생명이 유실’된다.

4) 부분적으로 관리하면 한 생명도 관리할 수 없다

7.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행하는데 ‘확실히’는 행하지 못한다.
생명 관리도, 강의도, 설교도 그러하다.

16. 관리도 부분적으로는 다 한다.

25. <부분적으로 관리>하면, ‘한 생명’도 관리할 수 없다.

5) 생명을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

<생명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자>는

‘애굽의 바로 왕에 속한 자’다.

‘모세’를 통해 애굽을 벗어나야 ‘애굽의 몸종’이 안 되듯,
생명도 그러하다.

자기가 관리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려는 자들은
그 죄가 심히 크다. 삼위께 갈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았기 때문이다.

6) 자기 주관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

- <성령의 생각을 알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주관>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덕’이 되지 않으니,
꼭 <성령의 생각>으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7) 관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 관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자기에게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형제들과 생명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 잘되려면, ‘매일 관리를 생명시’ 해라.
자기 관리, 그리고 생명 관리다.
- 몇 번만 관리하면 될 것인데 안 해서, 댐이 터지게 되기도 한다.
- 관리하는 자가 받는 하늘의 보화는 크고도 크다.
-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꼭 잡고 관리다.
- 행할 때마다 완전한지 살피고, 관리하여라.
- 삼위와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매일 관리하시니, 우리가 존재한다.
이 위에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물같이 흘러간다.

8) 관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조심하라

19. 너무 어리게만 보고 관리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만나줄 때 겉으로는 외면하지 않고 대해도 속으로는 관리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일으켜 주어야 된다.

23. 말로 상대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려다 오히려 더 넘어지게 한다.

25. 관리자가 생명과 놀아 주기만 하면, 그 생명이 더 자기 주관으로 빠지게도 된다.

- 26. 관리한다고 먹이고 입히기만 하면, 오히려 육적인 자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다.
- 27. 관리하면서 기도를 깊이 하여 꿈으로도 깨닫고, 기도 때도 깨닫고 관리하여라.
- 30. 관리하다가 그 생명에게 빠지지 말아라.

9) 인성으로 육적인 관리

- 17.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혼자 하는 것이 되고 인성으로 흘러가 버린다.
- 18.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육성이 되어 아무것도 아니다.
- 19.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인성으로 흐르지 않는다.

육적 관리로 습관을 들이면 10년, 20년, 50년을 관리해 줘도 계속 그같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소외감을 탑니다.
전도한 자들은 앞으로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된 자가 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지난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성자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섭리와 함께 한 것을 회고하며 자기 앞에 당하는 어려움을 오직 하나님과 성자에게 맡기고 섭리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성자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늘 불안·초조·걱정·근심·염려만 하며 가슴을 조입니다. 이는 신앙인이 아니고 인간을 의지하고 사는 인본주의자입니다.

9. 월명동과 관리

1) 자기 것이니 같이 쓰고 관리하며 살아가

결혼했는데 남편 집에 큰 정원이 있으면
‘자기 것’ 이니 같이 쓰고 관리하며 살 듯,
하나님의 시대 신부들도 ‘하나님의 전, 자연성전’ 은
‘자기 것’ 이니 같이 쓰고 관리하며 살아가.

2) 월명동 작품들이 귀한 것같이 너희는 귀한 생명들이다

월명동의 작품들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모양과 형상을 희귀하게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제일 좋은 것을 아시니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보면서도 그 가치를 오랜 세월이 가도록 모릅니다.

◇ 월명동에 가져다 놓은 술들은 귀한 술들이며, 대(大)결작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시대의 하늘 궁에 심으라고 하셔서 우리는 갖다 심은 것
입니다. 심어 놓고, 잘 관리하라고 귀한 것들은 가르쳐 줬습니다.
‘이 나무들이 귀한 것같이, 너희는 영원토록까지 귀한 생명들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월명동에 쌓은 돌들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닳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몇십 톤씩 되는 엄청난 무게로 서로를 누르고 있고,
기초로 삼은 땅은 굳어져서 췌덩이같이 되었습니다.
돌들이 서로 누르면서 잡아 주니 튼튼하고,

바위 사이에 심은 소나무들은 마치 ‘바위 숲’ 이 되듯 큼니다.
이 소나무들의 뿌리가 확 치고 내려가 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바위 숲’ 이 되었습니다.

<섭리사 생명들>도 그러합니다.

<자연성전의 돌들과 나무들>을 ‘자기’ 라고 생각하고, <월명동 산봉우리들>을 ‘자기’ 라고 생각하고 주인 되어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술이나 나무’ 도 관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산’ 을 정해서 관리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기대하고 즐기고 사랑하면서, 각자 개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3) 자기를 ‘희귀종 작품 인생’ 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 <희귀종 나무>가 ‘모양과 형상’ 이 특이하듯,
<자기>도 ‘희귀한 모양과 형상’ 을 가지고 있습니다.
- <희귀한 나무>는 <관리>를 안 해주면 ‘수형’ 이 바뀌어 버립니다.
<월명동 나무>도 20년 전에는
<거름>만 주고 <수형 관리>를 안 해 줬더니,
‘키’ 만 크고 ‘모양과 형상’ 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 이와 같이 <사람>도 관리하지 않으면,
<특성과 재능의 형상>과 <마음과 생각의 형상>이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은 2021년 9월부터 3달 동안
<소나무 3500주>를 가지치기하고 큰 가지들을 끊어서
<수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섭리사 모두>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작품술>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자기>도 ‘희귀한 작품’ 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몸>도 ‘운동’ 해서 만들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도, <행실>도
‘말씀을 듣고 실천’ 하여 만들기 바랍니다.

4) 돌 관리하듯이 관리해야 한다

〈야심작〉은 전체를 ‘돌’로 쌓았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쌓았어도 장맛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꽂꽂 얼었다가 녹으면, 옆으로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돌 한 개의 무게가 50톤, 70톤, 80톤씩 나가지요?

그 크고 무거운 돌이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 크고 무거운 돌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돌이 깨지고 부서지면, 장맛비가 왔을 때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장맛비가 오면, 그 튼튼한 돌도 옆으로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돌도 관리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신앙도, 생명도 관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까지 죽습니다.

고로 ‘영’도 관리하고 ‘육’도 관리하고 ‘환경’도 관리하면서,

〈자기〉도 관리하고 〈형제〉도 관리하고 〈교회〉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하고 그냥 두면 비바람이 몰아치듯 환난과 고통이 오고, 사탄과 악인들이 방해하고 꺾어서 ‘세상, 물질, 이성’으로 넘어집니다.

5) 〈월명동 소나무〉 손대서 관리해야 작품으로 잘 겁니다

〈관리〉는 할수록 ‘관리할 것’이 많습니다.

〈월명동 소나무〉도 기도만 한다고 잘 크는 것이 아닙니다.

손대서 관리해야 잘 겁니다.

때마다 가지를 쳐 주고, 해마다 나무 밑을 파서 나무 한 그루당 열 자루에서 스무 자루씩 퇴비를 해 줍니다. 다 합치면 수천 포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들이 그렇게 컸지, 그냥 놔뒀으면 기본만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퇴비를 하니, 여러분이 월명동 소나무들을 볼 때마다 해마다 눈에 띄게 컸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55. 키워야 아름답다.

56. 퇴비하고 키우면 변화되어, 우아하고 아름다운 숲이 된다.

저마다 월명동에 있는 소나무 하나씩 정해서 퇴비도 하고,
병들지 않게 관리하고, 애인같이 키우면서 자연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나무로 계시하시고 대화하신다.

57. 당세에 거목을 보려면, 퇴비하여 키워라.

예전에 못생겨서 베어 버리려고 한 작은 소나무가 있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베지 말아라. 거름 주면 커서 멋있게 된다.”
말씀하시어 안 베고 키웠더니 지금은 커서 거목이 되었다.

잔디밭 위쪽 전망대 가는 길의 우측에서 크고 있다.

생명들도 어릴 때는 말도 안 듣고 품위도 별로 없다.

자꾸 키우면 다른 자가 되고, 소나무 작품이 되듯 작품이 된다.

58. 1978년에는 월명동 앞산, 뒷산, 옆 산 어디에도 멋있는 소나무가 하나도 없었다. 회골 능선에 큰 것이 몇 그루 있어서, 큰 소나무를 보려면 거기까지 700m를 가서 봤다. 지금은 그런 큰 소나무들이 운동장 옆에도 많고, 뒷산과 옆 산에도 즐비하다.

섭리사예의 사람들도 20년, 30년 전에는 거목이 없었다. 지금은 즐비하다. <말씀>을 퇴비로 주어, 먹고 듣고 행하여 자랐기 때문이다.

6) 야심작, 연회장 단장하고 만들고 관리

1. 단장하고, 만들고, 관리해야 된다.

2.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난다.

3. <야심작>도 상단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니 잡초가 무성하고, 여기저기 흙이 무너져 내려서 돌이 기울었다. 그래서 어제 제자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청소하고, 기울어진 돌도 손대서 관리했다.

4. <야심작>도 이제 깔끔하게 ‘신부 단장’ 했다. 모두 이렇게 하겠다.

5. <생명>도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나서 해가 된다.

6. <만드는 것>도 중하고, <단장>도 중하다. 중한 만큼 ‘관리’ 해 주고, ‘끝매듭’ 을 깨끗이 해야 된다.
7. <신앙>도 그러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성전같이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자기를 만들었다. 거기에 비해, 이제 100분의 1 정도만 단장해 주면, 엄청나게 빛이 난다.
8. 우리는 그동안 청춘을 불사르며 엄청나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 이제 <단장할 때>다. <단장과 관리>만 한다면, 정말 빛이 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9. <신앙>과 <그동안 해 온 것들>을 더욱 빛나게 하려면, ‘절대 단장’ 해야 된다. 안 하면, 단장 안 한 얼굴 같아서 별 볼 것 없다.
10. <단장 안 한 신부>는 <칠보단장한 신부>를 모든 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 <이 시대 하늘 신부들>은 그동안 만든 것이 있으니 ‘절대 단장’ 을 해야 된다.
11. <얼굴이 예쁜 미인>이라 해도 단장하지 않으면, <단장한 여자>를 따라갈 수 없다. <이 시대 하늘 신부들>도 그러하다.
12. <야심작>도 이제야 단장을 했다. 해 놓고 보니, 정말 ‘신부 단장’ 한 것 같았다. 섭리사 모두는 말, 행실, 마음, 생각, 기도, 말씀, 예술, 운동 등 미비한 것들을 아름답게 단장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꼭 단장해야 된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가지 다 단장’ 이다.
13. <연회장>도 소나무를 심고, 각종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가져다 갖추어 ‘신부 단장’ 했다. 그러니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멋진 비경이 되었다. <자기 자신>도 꼭 단장하기다.

10.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관리’

1) 하나님은 온 인류와 만물을 살피고 돕고 관리하신다

23.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온 인류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살피고 돕고 관리하신다. 사람뿐 아니라 만물들도 하나하나 살피고 도우신다.

24. 나무나 돌들이 사람들이 귀하게 보고 돕는 것을 모르듯이, 사람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모른다. 지능이 발달할수록 한 차원 높은 짐승들은 자기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안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

25. 사람들끼리도 지능이나 깨달음에 둔한 자일수록 자기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 생각이 높고, 지혜 있는 자일수록 자기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도 그러하다.

2) 우리 육신의 목자, 신령한 목자 : 하나님 성령님 성자

20.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점점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그 환경도 싫어지고, 결국 거기서는 제대로 못 살게 된다. 하나님의 주관을 벗어나서 사니, 자기 지능이 낮은 대로 고통받게 된다.

21.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인도자’가 있어서 자기를 인도해 주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희망’으로 산다.

22. <목자가 없는 양들>은 ‘환경’이 좋아도 ‘목자’가 없으니 제대로 못 산다.

23. <인도자>가 없으면, 불안하고 힘들고 위축된다.

24. 서로 얹히고 뭉치고 하나 돼야 된다.

<꿀벌>이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하듯,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25. <목자가 없는 양들>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흩어진다.

26. <목자가 있는 양들>은 ‘환경’이 나빠도 목자를 따라서 서로 뭉쳐서 하나 되어 산다.

27. <우리 육신의 목자, 신령한 목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이시

다.

3) 하나님의 지구 관리와 통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구상을 관리를 하시는지 물었을 때,

“어떤 무용수가 있다.” 했습니다.

무용하는 사람, 우리 섭리의 날개 팀 무용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용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세상을 관리하시나 물었을 때,

“어떤 무용수가 무용을 배웠다.

그 무용 배우고 자기 몸을 가지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태권도, 축구, 배구하는 사람들이 배워갖고서 자기가 그 불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만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솔하고 사시네요.”

그때부터 ‘아, 그럼 나는 하나님의 통솔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과 같이 알고서 살아나가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0대 때 깨달았습니다.

4) 하나님 성령님은 지구 세상 80억명을 관리해 주신다

- <우리>는 ‘그 생명이 생각나면’ 돕고 관리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24시간’ 관리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생각과 감동>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순간순간 쓰시면서 <자기 삶의 관리>도 해 주시고,

<생명 관리>도 해 주십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지구세상 80억 명’을 관리해 주십니다.

<섭리사 생명들>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니다.

- <사람>은 늘 따라다니며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합당한 자>를 통해 ‘할 말’을 전해 주고 관리해 주십니다.
<여기>에 있으면 ‘여기 있는 합당한 사람’을 통해
‘할 말’을 전해 주고 관리해 주시고,
<저기>에 가면 ‘거기 있는 합당한 사람’을 통해
‘할 말’을 전해 주고 관리해 주십니다.
또, <그 생명>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을 통해 ‘부족한 것’을 알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5) 예수님의 생명 관리

- 예수님도 생명들을 찾아다니며 관리하셨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고,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고,
아픈 자들의 병을 고치며 관리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풀어 주면서 관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도와주면서 관리하고,
주관권을 벗어난 자들은 잃은 양을 찾아오듯 관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관리하셨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오셔서 그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귀하고 많은 일들이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을 맡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혼자 말씀을 전해 주고, 혼자 밥도 해 먹고, 혼자 빨래도 하고, 모두 혼자 했다. 그러다가 전도되어 사람이 많아지니,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 주신 생명들 중에 열두 제자를 세워 놓고, 혼자 전할 수 없는 복음을 같이 전하게 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뽑아서 가르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말해 주면서 각 마을 촌락에 보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듯 전해 주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데려온 자들을 전적으로 가르쳐 주고, 메시아로서 머리가 되어서 해 줄 것들을 해 주고, 관리해 주고, 생명들을 다스렸다.

11. ‘관리’ 사연과 생활

1) 의(義)를 가지고 마음을 닦았다

◇ 선생은 10대 때, 거울을 보다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들여다보던 거울을 켜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얼굴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미우면 얼굴이 밍게 보인다.” 하셨다.

고로, 그때부터는 마음을 더욱 좋게 만들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의(義)를 가지고 마음을 닦았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매일 하였다.

육도 받을 만들듯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닦는 것이다.

마음을 닦아 쓰니 좋은데,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은 강한 자에게 상처를 너무 받는다.

누구든지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마음이 좋아야, 얼굴도 좋은 것이다.

2) 연구하고 노력했다

선생은 15세 때부터 기성 신앙인들을 본받지 않고, 더 새롭게 살겠다고 연구하고 노력했다. 나무를 하러 다니면서 인생의 삶을 뼈저리게 생각하며 남다르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생활이 가난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늘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싫고 고생돼서 ‘육도 영도 고생하지 않고 사는 길’을 찾고 다녔다.

결국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하게 하셨다. 그때부터 대둔산 용문골에서 기도하며 ‘이상적인 인생의 삶’을 찾고, 배우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어 그 말씀대로 바로 깨닫고 살게 한 것이다.

3) 하나님 성전의 관리자

1. 선생은 <하나님 성전의 관리자>로서 늘 성전을 돌아보며 관리한다.
하루는 성전의 이곳저곳을 보다가 ‘상처가 있는 나무들’을 보고 ‘섭리사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무의 상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치료해 줬다. 그러면서 “이제는 받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재인식하게 됐다.
2. <자기가 받은 것>을 ‘충성’으로 관리하기다.

선생은 <하나님의 자연성전>의 ‘나무, 돌, 잔디, 흙, 물’을 깨끗이 잘 관리하겠다고 매일 기도합니다.

4) ‘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살까?’

선생은 열 살 이후부터 ‘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열다섯 살 때까지 이것을 생각하며 마음고생이 많았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공무원을 해야지.’ 하며 산속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볼수록, 공부할수록 근본의 마음이 즐겁지 않고 걱정되고 번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며 <인생을 만드는 것>에 대해 알고 감동받고 성경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즉시 산에 가지고 갔던 일반 책 한 박스를 내던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 배웠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성자에게 물어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배우고 행했습니다.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고생돼도 그것을 <생명길>로 알고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감동받고 좋아서 노방전도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5) 필사적으로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만들었다

선생이라고 심지어 앓았는데 거두겠습니까? 선생도 심고 거둡니다. 행하고 얻습니다. <오늘날 섭리역사>도 심고 거두었습니다.

보통으로 해서는 선생을 이처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산에 있으면서 필사적으로,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생활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생은 다릿굴 기도굴, 대둔산, 집과 가까운 뒷동산, 감람산 등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월명동 성지 땅에 길을 내놓은 곳>은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며 눈물을 비 오듯 흘리고 다니면서 만든 ‘성지 땅’입니다. 험한 산길을 마당같이 누비며 기도하러 다닌 곳입니다.

선생이 기도하면 성자는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동받고 깨달은 후에는 꼭 ‘말씀 전하기, 실천하기!’였습니다. 나를 만드는 것을 늘 ‘생활화’하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성장했고, 기성 교회에 다니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사로 전적으로 뛰며 열심히 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 나도 배우면서 매일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6) 각종 위기와 죽음에서 살리는 관리

5. 관리는 마음 떴면 안 된다. 눈 떴면 안 된다.

6. 선생이 아기 때 일이다. 엄마가 감나무 밑에다 아이를 놓고 허리에 끈을 매어 기어 다니게 두고, 엄마는 30미터 떨어진 곳으로 받을 때러 갔다. / 그 후에 독사가 와서 아이 옆에 와 있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무럭거리며 손으로 독사를 잡으려 했다. 독사는 놀라서 고개를 뒤로 젖혔다. 다시 아이가 손을 내리면 독사는 아이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 엄마가 받을 때도 아이를 신경 쓰고 있으니 느낌이 이상하여 밭에서 뛰어

내려왔다. 와서 보니 독사가 아이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다. 엄마는 순간 아이를 들어 옆에 놓고, 놀란 만큼 뱀을 때려잡았다. 그래서 선생이 살았다. / 관리자는 늘 신경 써야 그 생명에 대한 상황이 느껴져 바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차원 높은 정신적 관리와 영적 관리를 해야 생명을 각종 위기와 죽음에서 살린다.

7. 말씀을 근본으로 넣어 주고 본인이 시동 걸려 뛰게 해 주면서, 먹을 것으로도 잔치해 주고 입을 것으로도 날개를 달아 줘야 한다.

7) 많은 사람들의 관리를 받으면서 컸다

- 선생님도 <많은 사람들의 관리>를 받으면서 컸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의 관리>를 받았고,
때로는 <부모님의 관리>를 받고, <형제들의 관리>를 받고,
<교회 교역자와 지도자들의 관리>를 받고 컸습니다.
- 선생님도 그때는 <여러 사람>이 나를 지도한다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싫어했습니다.
한때는 모두를 ‘잔소리꾼’으로 보며 싫어했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을 보고, 이제 ‘잔소리’를 안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가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 후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과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 관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 선생님도 이같이 <관리>를 받고 성장하니,
<약한 자들>과 <잘하는 자들>을 ‘관리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 <사람을 통한 관리>는 ‘한 때’ 받고 지나가지만,
<성령님의 관리>는 ‘죽을 때’ 까지 받아야 됩니다.
- <나이>가 들고 성장했어도,
<성령님의 관리>를 받아야 ‘성령의 생각’으로 행하게 됩니다.

8) 가르쳐서 하게 했다

선생도 일을 해 보니, 처음에는 모두 혼자 했다. 사람이 없으니 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 밥도 해 먹고, 혼자 빨래도 하고, 혼자 시장도 가고, 혼자 말씀도 준비해서 전해 주고, 혼자 집 청소도 하고, 혼자 생각도 했다.

그러다가 점점 사람이 와서 홀로 할 수 없으니, 그때마다 이 사람도 시켜서 하고, 저 사람도 시켜서 하고, 강의도 가르쳐 주면서 “배운 대로 너희도 가르쳐 주어라.”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치는 자가 많게 됐다.

그중에 먼저 온 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관리도 하게 하고, 부서 지도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행하게 했다. 그리고 선생은 더욱 머리가 되어서 지도자들을 관리해 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일을 맡겼어도 내가 하는 대로 못 하니까 자꾸 못 말기고 내가 하게 됐는데, 그러니 일이 많아서 다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게 했다.

9)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

22. 차도 췌덩어리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못 하면 ‘새 차’라도 몇 년 만에 바로 버린다. 관리를 잘해야 수십 년씩 새것같이 쓴다.

23. 일반 사람들은 10년 타면 차를 바꾸지만 선생의 차는 30년 되어도 관리를 그만큼 하니 지금도 잘 간다. 거의 새 차다. 그 시대가 지나갔는데도 돌아다니니, 모두 보고 “정말 보물이다.” 한다.

24. 이와 같이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 사람도 동일하다.

25. 선생과 같은 시대 사람들은 벌써 고물이 되고 폐차가 되어 돌아다닌다. 그런데 선생은 아직도 이 시대에서 놀고 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그러하다. 그들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하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엄청난 일을 안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도 관리를 안 했다.

26. 췌덩어리는 닦고 기름칠해야 된다. 자기 몸도 매일 씻으면 매일 씻고 닦고 단장해야 된다. 건강관리도 매일 하며 운동하고, 아픈 것은 고쳐 버려라. 음식도 건강하게 신경 써서 먹기다.

27. 사람이 이것저것 다 잘해도 한 가지를 안 하면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를 철학적으로 깨달아라. 이것을 다 했다고 해서 다른 것도 되는 일은 없다. 열 가지, 스무 가지를 전부 잘해야 그것들도 잘 돌아간다.

10) 시간 관리

56. 술도 필요 없고, 담배도 필요 없고, 필요 없이 노는 것은 하지 말고, 무리하게 운동도 하지 말고, 필요 없는 시간을 내지 말아라.

57. 선생은 필요한 시간만 쓰다 보니까 이만큼 인생을 관리하게 되었다. 꼭 필요 없는 잠도 잘 필요가 없다.

58. 필요 없는 시간을 쓰지 않고 할 때 최고가 된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나머지 시간을 가지는 것도 지나치면 안 되고 체질이 돼야 된다.

59. 나이 먹고 더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젊었을 때 5년을 빨리 뛰어라. 나이를 더 먹으면 할 일을 못 하고 가만히 식물인간 같이 있다가 죽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60. 젊었을 때 많이 뛰어야 된다. 젊었을 때 많이 뛰 사람은 선생 같이 천 년을 산만큼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통 100년을 살아도 특별히 해 놓은 것이 없다.

11) 건강 관리

6. 육신의 의사도 돼야 하고, 신앙의 의사도 돼야 한다.

건강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 육 두 가지에 다 해당된다.

7. 선생도 의사만 의지해서는 이와 같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스스로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55년 동안 대체 의학을 공부했다.

11. 관리에 대한 잠언

○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이 ‘관리’ 만 잘하면 완전하다.

<사람>도 ‘관리’ 를 잘하면 완벽하다.

자기가 살면서 육도 혼도 영도 잘 관리한 대로, 그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와 함께 산다. 고로 모두 ‘관리’ 를 잘하여라.

○ 생활 관리, 피부 관리, 근육 관리, 관절 관리, 위와 폐와 심장 관리, 눈과 코와 입과 귀 관리, 손과 발 관리 등 모두 철저히 해야 된다.

<자기 몸>을 귀히 보고 매일 관리해야 수한 전에 안 죽는다.

이같이 ‘신앙 관리, 영적인 것 관리’ 도 철저히 하기다.

<암이나 각종 병>도 ‘미리 관리’ 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기 몸’ 인데 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병으로 생명을 뺏기느냐.

○ <건강>도 그러하다. 자기가 특별히 암이 생기거나 큰 병이 생길 일을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먹는 음식이나 자기 체질, 혹은 생각 등으로 병이 생기니 늘 ‘건강관리’ 를 해야 된다. 암세포가 생길 때 처음에는 미세하다가 여드름만 하게 되고, 손톱만 하게 되고, 엄지발톱만 하게도 커진다. 자기도 늘 건강관리 하고, 초기에 ‘의학’ 으로도 관리해야 된다.

○ 육도 혼도 영도 늘 관리다.

<육>을 통해 ‘영’ 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게 되니,

매일 자기 육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여라.

육이든 영이든 관리하지 않고 쓰기만 하면 바로 망가진다.

<몸>은 평생 쉬지 못하고 24시간 매일 운행한다.

고로 매일 관리해야 된다.

<몸의 기능>이 멈추면 죽고, <관리>를 쉬면 바로 이상이 생긴다.

몸은 쉴 때 쉬지도 못하고 24시간 운행하니, 매일 관리해야 한다.

자기가 ‘기본적인 관리’ 는 할 수 있으니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가 못 하는 ‘전문적인 관리’ 는 병원에도 가면서 하면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 <관리>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 이 되어 마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자와 같이 정신일도 하여 앞뒤 좌우 살피듯이 관리해야 된다.

운전하는 중에는 운전을 쉬지 않듯이, 자기는 ‘자기 몸을 운전하는 자’이니 쉬지 말고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 안 하면,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

○ 가령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지붕 관리를 안 하고 방에서 물만 받아내면, 결국 천장이 다 썩어서 때가 되면 지붕이 내려앉는다. 혹은 지붕이 그대로 있어도 썩어서 냄새가 풍기니 살 수가 없게 된다. 게을러서 관리를 안 하면, 신앙도 이같이 된다.

지붕에서 물이 새도 말 못 하는 지붕이 스스로 고치지는 못하니, 아는 자가 고쳐 줘야 된다. 이같이 <생명 관리>도 ‘본인이 스스로 하겠지.’ 하지 말고 아는 자가 해 줘야 된다.

지붕에서 물이 썰 때 급하면 우선 비닐만 덮어 줘도 안 썩는다. 그 후에 지붕을 뜯어내서 말리고 공사를 해서 ‘근본적인 것’을 고치면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 기본적으로 자기가 매일 쓰는 방이나 정원은 늘 청소하며 살 듯, 자기 몸도 매일 쓰니 늘 관리해야 된다.

밥을 먹으면 먹은 것을 깨끗하게 씻고 닦고 청소하듯이 자기도 이같이 관리하기다. 관리해야 제대로 존재한다.

○ 유리 상자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몸은 자체적으로 노폐물이 분비되니 시간이 가면 몸에 때가 쌓인다. <신앙 세계>도 그러하다. 가만히 있어도 생각에 의해 ‘죄의 더러움’이 ‘몸의 때’ 같이 생긴다.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것이 죄가 되고, 게으른 것이 죄가 되어 쌓인다. 유리 상자 속에 있어도 때가 생기듯이 사람도 그러하니, 자기가 특별히 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자기 몸을 씻고 관리하듯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여라.

○ 어떤 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와서 친구에게 목욕탕에 가서 같이 씻자

고 했다. 그런데 자기는 밖에서 일도 안 했고, 운동도 안 해서 땀도 안 나고, 일주일 동안 방에만 있었다고 하며 안 간다고 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안 했어도 때가 썩일 것을 알고 아는 자가 같이 씻으러 가자고 한 것이다. 고로 그 사람을 따라가서 때를 밀었더니, 일을 한 자나 안 한 자나 비슷하게 때가 나왔다.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은 항상 가동하고 쓰니, 노폐물이 생긴 것이다. <죄>도 그러하다. 자기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어도 ‘죄의 때’는 삶에서 생긴다. 고로 <죄>에 대해 배우고 깨닫고 늘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

○ 방에서 메뚜기나 여치, 베짦이 같은 곤충들을 기르다 보면 어떤 곤충은 뛰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날아다니기도 한다. 섬세히 관찰해 보면, 각자 개성이 또렷하다. 고로 개성대로 기르고 대한다. 이같이 <사람 관리>도 그러하다.

어떤 메뚜기는 잘해 주려고 손을 댔는데, 뛰다가 다리가 빠져서 해가 되었다. <생명 관리>도 손을 댈 필요 없이 본인이 할 것이 있는데 걱정된다고 하며 잘해 준다고 손을 대면, 메뚜기 다리가 빠지는 격이 되어 손해가 된다. <지나친 관리>나 <자기중심적인 관리>는 오히려 서로 손해다.

<본인이 못하는 것>만 도와주며 조심스럽게 관리해 줘야 된다.

어떤 메뚜기는 너무 뛰어다니기에 ‘저러다 나가겠다.’ 싶어서 갑을 만들어 가두어 놓았다. 저녁에 보니 죽어 있었다. 답답해서다. 지나치게 관리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말씀하시길, “생명들 중에도 이 같은 생명들이 있다. 자기가 뛰는 대로 그냥 두면, 제 갈 길을 알고 간다.” 하셨다.

어떤 메뚜기는 귀엽다고 때마다 먹을 것을 줬더니, 옆에 있다가 뱉혀 죽기도 했다. 또 어떤 메뚜기는 춥다고 늘 따뜻한 데 옮겨 주며 길렀더니 늘 거기 와서 살았다. 그런데 관리자가 관리를 너무 깊이 하니, 피곤했다.

세상으로 나갈까 봐 가두어 놓듯 하는 관리는 오히려 답답해서 뛰어 도망가게 하고, 그냥 놓아두면 제 생각으로 크다가 선을 넘어간다. 고로 ‘선’을 넘지 않는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 주관적인 관리>는 오히려 해가 된다.

<말씀 관리>다. 말씀 안에서 관리해야 된다.

○ 첫째,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관리하라.
 메뚜기는 아무리 잘해 줘도 모릅니다.
 고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관리하라.
 둘째,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
 어느 때는 뜨거운 물을 받아 놓고 그 위에다 종이를 얹으면
 메뚜기가 종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종이를 뺀 상태에서 메뚜기가 뭘 모르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몇 달 동안 관리한 게 헛수고가 됩니다.
 고로, 눈을 떼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메뚜기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내 품에 있다가도 땀 데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때에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거기 들어가니.'
 그러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것을 돕는 관리를 하라.
 메뚜기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고로 관리자가 다 도와야 됩니다. 다 돕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넷째, 세심한 관리를 하라.
 어느 때는 기르는 자가 밟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엉덩이로 짓밟아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자신의 말과 행동, 혹은 강사들 혹은 주변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
 으로 전도한 생명이 밝혀서 죽어 나갈 수도 있으니
 밟히지 않았는지 살펴야 됩니다.
 다섯째, 안 보이면 바로 찾는 관리를 하라.
 메뚜기가 안 보이면 바로 찾아야 됩니다.
 조금 시간을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죽기도 합니다.
 안 보이면 즉시 찾아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잡아 주고 끌어 주는 관리를 하라.
 메뚜기는 혼자 꼬무락꼬무락 어딜 잘 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 보여
손으로 밀어 주면 순간 이동하고, 또 손으로 들어 주면 순간 이동합니다.
그러면 메뚜기는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하며 감격 감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도 '너 왜 못 오니' 하지 말고 잡아 주고 끌어 줘야 합니다.

○ <삼위와 같이 관리>다. <신적 관리>다.
<양단 관리>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관리다.
<생명들>도 관리가 안 돼서 '일생 한 번의 기회로 온 자들' 을 뺏긴다.
교육하는 자의 책임, 전도자의 책임이다. 뺏기고서 그리 울며 "심정 탄
다." 한다.
<예정>은 거의 없다. <관리 책임>이다.

○ 잘 키우고 잘 관리했어도
<악한 자에게 뺏기지 않게 하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이성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성 죄를 지었어도 '말' 을 안 하기 때문
이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시키고, 사탄이나 뺏은 자로 인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관리' 해 줘야 된다.
<육신의 성공>은 한 기간 혹은 일생 동안 가지만, 관리를 잘해서 <영혼의
성공, 신앙의 성공>을 하면 영원토록 누리고 살게 된다. 그러므로 전심을
다하여 '자기와 형제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 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 <말씀>을 온전히 알도록 가르쳐 주고, <말씀의 주인>이 되어 온전히
살도록 가르쳐 주고, 자기 몸의 때를 자기가 씻듯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여 해결하게 해 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활하게 해
주고, <주일 성수>를 하게 해 주고, <각종 환난>을 어떻게 대하며 이기는
지 가르쳐 주어 지혜롭게 행하게 해 줘야 된다.